

中, 신장 위구르 '집단학살' 논란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발목 잡을까

캐나다 의회 개최지 변경 결의안 英외무장관 "고문·낙태 자행" 비판 中매체들 "정치화 위해 루머 과장"

서방 국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신장 인권 문제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학살이 계속된다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하도록 캐나다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고문과 강제 노동, 낙태 등이 산업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 당국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중 정서가 강한 일부 서방 국가가 올림픽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삼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 사회의 공세는 중국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신장 인권 문제' =최근 영국 BBC 등 서방 매체는 신장 인권과 관련한 비판 보도를 쏟아내면서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서방 매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중국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방해 공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중 갈등의 주된 요소는 무역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소프트 파워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다자주의'를 방패로 미국의 공세를 막아 내던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인권 문제를 새로운 공격 도구로 삼았다.

새로 취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중국의 신장 정책이 '학살에 해당한다'는 트럼프 전

정권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사를 밝혔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동등한 수준의 보복'을 가해 오던 중국은 인권 카드에는 속수무책 당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공세를 시작으로 영국과 캐나다가 신장 인권 문제를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이슈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국에겐 큰 부담이다.

◇중국 "올림픽 정치화 위해 신장 집단학살 루머 과장" =서방 국가들의 계속된 공세에 중국 당국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신장 제노사이드 이슈는 루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또 신장 문제가 국제무대로 옮겨 갈 경우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을 제기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의회의 결의안을 비판하면서 캐나다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극단적인 반중 세력이 꾸민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면서 스포츠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마자 중국 주요 매체들도 서방 국가들의 공세에 강력한 어조로 대응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에라도르 과야킬 교도소 제8구역 외부를 해방대 병사들이 경비하고 있다. 에라도르의 과야킬과 엘투리, 코토팍시의 교도소 3곳에서 이날 폭동이 발생해 재소자 50여 명 사망했다. /연합뉴스

에라도르 폭력조직 교도소 난동 62명 사망 참사

"두목 가리자"...3곳서 패싸움

남미 에라도르의 주요 교도소 세 곳에서 폭력조직 사이의 세력다툼이 벌어져 6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에라도르 남부 쿠엥카와 태평양 연안 과야킬, 중부 도시 라타쿠냐에 있는 교도소 3곳에서 폭동이 발생해 재소자가 62명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2개의 라이벌 폭력 조직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후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력 사태로 속출한 사망자들의 일부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됐으며 교도소 바닥은 피바다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는 재소자들의 참수 장면 등 폭동 당시 잔인함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들이 유포

되었다.

폭동 하루 전인 22일 경찰이 교도소들에서 무기를 수색한 후 2개 갱단 간 싸움이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에라도르 교정 당국 책임자인 에드문도 몬카요는 쿠엥카 교도소에서 폭동으로 재소자 33명이 숨졌고, 과야킬에서 21명, 라타쿠냐에서 8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밝혔다.

에라도르 정부는 폭동이 발생한 후 교도소들에 무장 경찰 800명을 투입했다. 에라도르의 재소자들은 폭동이 발생한 3곳의 교도소에 70%가 수감돼 있다.

수용 능력이 2만7천명이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3만8천명으로 훨씬 많은 에라도르의 교도소에서는 과거에도 폭동이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2월에도 교도소 내에서 범죄 조직원 간의 다툼이 벌어져 1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재소자 51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중국 젊은층 비혼·만혼 심각

혼인 8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칭화 대학 형태연구원 런쩌핑 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 결혼 현황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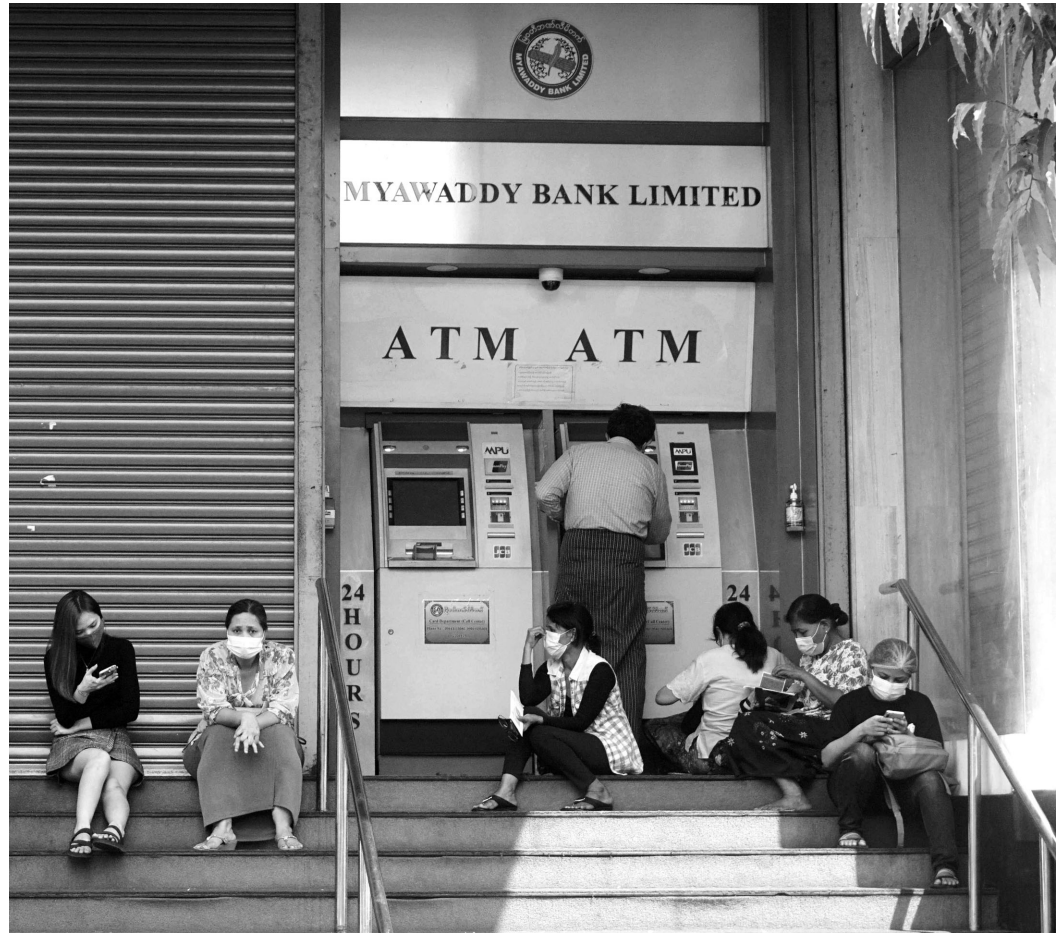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혼인 등록 건수는 2013년 1347만 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813만건으로 떨어졌다.

만혼 현상이 두드러져 혼인 등록을 한 사람 중 20~24세 비중이 2005년 47.0%에서 2019년 19.7%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25~29세는 34.3%에서 34.6%로, 30~34세는 9.9%에서 17.7%로, 35~39세는 4.9%에서 8.1%로, 40세 이상은 3.9%에서 19.9%로 각각 비중이 늘어났다.

중국 각 지역의 혼인율은 지역별 국내총생산(GDP)과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019년 상하이의 1000명 당 혼인율 비율이 4.1%에 그치는 등 동부 연안 경제발전 지역은 혼인율이 낮은 반면 구이저우성은 9.9%에 이르는 등 저개발 지역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이혼 등록 건수는 1987년 58만 건에서 지난해 373만 건으로 늘어났다. 인구 1000명당 새로 이혼한 비율은 1987년 0.5%에서 2019년 3.4%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문 닫은 은행 밖 ATM에서 현금 찾는 미얀마 시민들 23일(현지시간) 셔터가 내려진 미얀마 양곤의 마야와디 은행 밖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시민들이 돈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공무원 및 교사, 철도 근로자, 병원 의료진, 은행 직원 등 각계각층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며 대규모 시민불복종 운동(CDM)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고기가 작아지고 있다"

獨연구팀 강꼬치고기 연구 결과 안잡히는 작은 물고기만 남아 어획고 감소 미래 어업에 악영향

인간의 어로(漁撈)가 크고 활동적인 물고기보다 작고 비활동적인 개체에 대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래의 어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독일 '베를린 연구협회'(FVB)와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프니츠 탐수 생태 및 내륙 어업 연구소(IGB) 연구진들은 북반구의 민물과 짙물에서 모두 살 수 있는 '강꼬치고기'(pike)를 대상으로 집적적인 어로가 물고기의 행동과 어획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IGB의 로베르트 알링하우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브란덴부르크의 한 호수에서 고성

능 수중 원격측정 장치를 이용해 4년에 걸쳐 강꼬치고기 800마리의 번식과 이동 등을 파악하고 포획되는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의 특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몸집이 큰 물고기가 더 많은 새끼를 낳아 몸집이 커지는 쪽으로 자연선택이 작용했지만 어로 활동에 따른 선택은 이와는 정반대로 더 작은 물고기가 생존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크기에서는 활동적인 개체가 활동이 약한 개체보다 잡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알링하우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자연선택과 어획에 따른 선택 간 경쟁에서 작고, 비활동적이며 잡기 어려운 물고기가 살아남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어획을 감소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생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스위트형 방2개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